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8/16~8/22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성삼취경과 현겁천불명경	쫑카파/석혜능	하늘북	6	매일 108배 신 자비도량참법	행복문화연구소	이층버스
2	중론:산스끄리뜨 게송의 문법 해설을 겸한	용수/청목	오타쿠	7	낡은 옷을 벗어라	법정	불교신문사
3	초학자와 함께 하는 계율공부	정현/서주	담앤북스	8	티벳 스승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초펠	하늘호수
4	은정희 교수의 대승기신론 강의	은정희	예문서원	9	한글 아함경	고익진	담마아카데미
5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김원수	청우당	10	초기불교 이해	각묵	초기불전연구원

책세상

名士書評

활생 문명에서 길을 찾다



활생 문명으로 가는 길
김규칠 지음
운주사 펴냄
2만5000원



천안 각원사 청동대불.

대한불교진흥원은 불교학 진흥을 위해 '대원불교학술총서'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다. 이는 2020년부터 시작한 '대원불교 학술·콘텐츠 공모' 사업의 결과물들로, 2022년 첫 번째 책이 나온 이래 꾸준히 발간되고 있다. 최근에는 7번째 책인 〈활생 문명으로 가는 길〉(김규칠 저)이 발간됐다. 이 책에 대한 서평을 이한구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경희대 석좌교수)이 보내왔다. 이에 전문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활생 문명은 자연 착취의 문명서
잠재력 발휘 문명으로 전환 의미
불교 공·연기 사상 현대적 조명
이를 통해 현대문명의 길 모색해

현대 과학기술문명은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인간이 잘 살기 위해 구축한 문명이 오히려 인간에게 해악을 끼치고, 인류 문명의 지속 가능성이 의문시되는 지점에까지 이르렀다. 기후변화만 해도 그렇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의 삶은 풍요로워졌지만, 공장이나 자동차가 배출한 이산화탄소에 의해 지구가 계속 뜨거워지면서 수십만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자연의 균형이 깨지고 있다. 전 지구적으로 가뭄과 홍수, 이상 고온과 산불이 반복되고, 북극의 얼음이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고, 지역에 따라 사막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농작물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어떤 질병이 유행할지 예측불허의 상황이다.

전쟁의 위험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공멸의 두려움 때문에 핵전쟁까지는 아직 감행되지 않고 있지만, 최근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언제든 큰 전쟁으로 번질 요인들을 안고 있다.

인류의 진보를 상징하는 민주주의 정치 체제마저 흔들리고, 사회 내의 빈부의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다. 자유 민주주의의 종주국이라는 미국마저 포퓰리즘에 휩싸여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인다.

왜 이런 문제들이 표출되는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 이런 인류의 비극과 지구 생태 환경 위기를 단순히 인간 욕망과 기술 문명이 아니라, 더욱 근원적인 세계관과 '생산 편향적 시스템'에서 찾으려는 시도가 이 책 〈활생 문명으로 가는 길〉이다. 이 책은 현대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불교적 입장에서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한다.

1부 '문제의식과 탐구의 여정'에서 저자는 '연기적 현실 세계'에 주목한다. 연기적 현실 세계란 세계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성하는 움직임이고 흐름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고정된 실체나 관계의 종합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와 진화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2부 '역사와 문명에 대한 성찰'에서는 근대 이후 세계의 복합화 과정과 현대 전환기의 복합적 과제를 해부한다. 그리고 이 복합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구적 대안모색들, 사회민주주의, 포용적 제도론 등을 검토한다.

이를 기초로 하여 3부 '생각하는 사람들과 지구촌 시민에게 드리는 제언'에서 저자는 그의 독창적인 사상을 전개한다. 바로 대지와 현대 사회의 조화를 기반으로 한 '활생 문명'이 그것이다. 대지는 온갖 생명체의 삶의 기반이며 자기 조절과 자기 조직의 기능을 가진, 인류와 더불어 지구 운명의 공동결정권을 행사하는 당당한 행위자이기도 하다.

활생 문명은 자연 수탈, 자연 착취의 문명에서 잠재력 발휘 문명으로의 전환을 뜻한다. 살생문명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것이다. 공성과 연기의 관점에서 보면 인류는 대지와 분리될 수 없다. 불이(不二)다. 현대의 정치, 경제, 사회 구조는 세력들 간의 적대적 공생관계의 근본 전략과 맞물려 있다. 이 체제는 물리력을 기반으로 생산 위주 시스템을 강행 발동하여 자연과 생명을 종속적 대상으로 만들었다. 이리하여 대지와 대지의 생명체들은 절단과 남획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지금 인류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인내의 한계에 달한 대지가 던지는 경고다. 이런 경고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활생 문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저자가 제시하는 방안은 생산 편향 일변도의 시스템을 생성 순환 과정으로 바꾸는 것이다. 경제적 이익과 권력 유지만을 추구하는 생산 시스템과 우주 대자연과 대지의 연기법대로 순리를 따르는 생성 시스템은 서로 극과 극이다.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대지는 연기적 원리에 의해 대지를 구성하는 요소들 자체이며 대지의 틈에서 자란 뭇 생명들의 흙과 물과 대기의 구성 결과이다. 대지는 원천적 생명 공동체며, 이를 살려가는 것이 인류의 책임이다.

활생 문명은 개인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정신주의도 아니고 공동체적 사회주의도 아니다. 어떤 개념이나 표어로 틀지어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현재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시스템을 질적으로 도약시키는 것이다. 자유를 고도화시키고 공익성 목적의 고가치 시장을 창설하는 것이다. 생태 인문 운동과 사회문화 운동을 연결하여 생동하는 평화혁명으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불교의 공성과 연기 사상을 현대적으로 조명하고, 이를 기초로 현대 문명의 길을 모색한 이 저서를 읽으면서, 나는 때로는 현대 불교계의 큰 별이었던 휴암(休庵) 선승의 음성을, 때로는 용수 보살의 법문을 듣는 듯했다. 불교가 현대 문명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모든 분들께 일독을 권하고 싶다.



이한구
(경희대 석좌교수,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구원과 욕망의 교차로, 실크로드를 가다



난처한 동양미술 이야기 3
강희정 지음
사회평론 펴냄 / 2만 5000원

〈난처한 동양미술 이야기〉는 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이 세상의 모든 지식 시리즈, 즉 '난처한 시리즈'의 세 번째 여정이다. 서양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우리 시선으로 미술사를 새로 쓰고 더 깊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이끈다.

3권은 동서 교역의 주 무대였던 실크로드에서 출발한다. 이 책의 주요 배경인 타클라마칸 사막은 실크로드 가운데서도 가장 험난한 구간으로,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라 불린 땅이었다. 실크로드 상인들은 목숨을 걸고 이 사막을 건넜으며, 중개무역을 통해 큰돈을 벌었다. 부유한 실크로드 상인들, 실크로드 도시를 차지한 권력자들은 자신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사원 조성에 앞장서는 등, 적극적으로 종교에 후원했다. 인도의 석굴사원, 서역의 불교 미술이 어느 순간 그토록 화려해진 데는 이들의 강력한 후원이 있었다. 실크로드의 경제적 발달이 미술의 발달을 가져왔던 것이다.

한편 아시아의 구법승들은 부처의 가르침을 구하기 위해 타클라마칸 사막을 건너 인도로 향했다. 후에 고국으로 돌아간 구법승들이 불교를 전파하며 불교 미술 역시 아시아 전역으로 퍼지게 된다. 상인의 부를 향한 욕망, 구법승의 구원을 바란 열망은 실크로드 미술을 만든 원동력이었다.

실크로드는 동양과 서양, 유목 민족과 정착민, 세계와 세계가 끝없이 충돌하는 땅이었다. 이 길에서 미술은 끝없이 변화했으며, 각 지역이 가진 고유한 미감을 품은 채로 경계의 안팎을 넘나들었다. 실크로드 미술은 어떤 시대, 어느 지역의 미술보다 역동적이었고, 동서양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다. 〈난처한 동양미술 이야기〉를 통해 이제 그 광대하고 변화무쌍한 미술을 발견해보자.

임은호 기자

오행설 바탕으로 아름답게 장엄한 단청들



적멸보궁 단청만다라 컬러링북 ①②
김정희 지음
운주사 펴냄 / 1만 3000원

궁궐이나 사찰의 건축물에 아름답게 색칠한 것을 단청이라 한다. 이 책은 그 중에서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5대 적멸보궁'의 단청을 일러스트화 해서 그린 단청 컬러링북이다.

영축산 통도사를 비롯해 오대산 중대 사자암, 설악산 봉정암, 사자산 법흥사, 태백산 정암사가 '5대 적멸보궁'에 해당한다. 진신사리가 가지는 상징성 때문에 불자들에게는 순례와 참배의 주요한 대상이 돼 왔다. 단청은 주로 청(靑), 적(赤), 황(黃), 백(白), 흑(黑)의 5가지 색상인 오채(五彩)로 구성되며, 단청의 아름다움에는 '우주만물의 에너지가 서로 어우러져 긍정적인 기운을 자아낸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일반적으로 만다라 이미지는 특정 시공간을 초월하여 신비로움과 성스러움을 표현하는 형태로써 종교적 상징으로 통용되고 있는데,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불법의 모든 덕을 두루 갖춘 경지의 상징을 영상화해서 표현하는 그림이나 기호를 말한다.

만다라는 인간의 내적 균형을 이루게 하는 힘을 갖고 있어, 심리적·신체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모든 연령층에 적용할 수 있다.

이 책 1, 2권에는 각각 27개의 단청만다라가 실려 있다. 각 단청마다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사경할 수 있게 했다. 만다라 그림 밑에는 당시의 생각이나 느낌 혹은 발원을 간단히 적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사경하고 적멸보궁의 단청만다라를 색칠하다보면 일상에서 겪게 되는 여러 위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와 힘을 얻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성숙된 개인으로 발전될 수 있게 될 것이다.

임은호 기자

"소원 성취", 사경 독송 공덕

"만일 어떤 사람이 경전을 베껴 쓴다면(寫經) 이것은 곧 부처님 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받게 되느니라." (대방광불화엄경)

민족사 사경 시리즈의 특징

- 한 권 속에 번역(한글), 원문(한문), 한자 독음이 붙어 있어서 사경과 독송이 동시에 가능!
- 사경의 방법과 목적 등 자세한 안내가 있어 혼자 사경하는 불자들의 길잡이가 됨!
- 책장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제본되어 사경과 독송하기 매우 편함!



1 금강반야바라밀경 (한글)
지혜 성취 기도
8,500원



2 금강반야바라밀경 (한문)
지혜 성취 기도
8,000원



3 아미타경 (한글·한문)
극락왕생 기도
7,500원



4 관세음보살보문품 (한글·한문)
고난 소멸 기도
7,500원



5 부모은중경 (한글·한문)
효행 기도
8,5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